

# 韓電의 原子力發電에 對한 國民弘報對策

吳 在 植

〈韓電 原子力發電處 原子力技術部長〉

## I. 序 論

부존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한국은 '70년대부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원자력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78년에 첫번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9기가 운전중으로서 전체 전력설비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량으로서는 50%를 상회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은 한국의 전력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전력공급의 책임을 맡고있는 한국전력공사로서는 국민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기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환경오염이 없는 원자력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은 초기에는 국민에게 별다른 거부감없이 받아 들여졌으나, TMI 원전사고 및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일부 환경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핵활동이 조직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전은 앞으로 국민적 이해 및 합의 없이는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자력에 관한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 이해를 구하여 국민적

합의하에 원자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한전의 원자력 홍보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불과 수년전 부터이다. 그러나 한전의 원자력 홍보활동은 매년 강화되고 있다. 각 원전마다 설치된 원자력전시관에 현재까지 총 13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으며 대학생 및 과학교사 등에 대한 원전시찰과 기자단에 대한 간담회 및 원전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각 계층에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본사에 사장 직속인 홍보전담부서(원자력안전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도 매년 상당액의 재정적 지원을 하여 각종 대 국민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내 여러기관이 수행하고있는 대 국민 홍보활동중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원전 홍보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력회사로서의 한전의 대 국민 홍보대책과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韓電의 對 國民弘報對策

### 1. 言論對策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그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은 비판적 기능을 보도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도 비판적 자세를 취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속성과 더불어 원자력의 짧은 역사 등으로 인한 언론인의 원자력 전문지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부족으로 인해 최근에는 근거가 희박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언론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은 효율적으로 수행될 시 즉각적인 성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언론의 지지획득은 일반대중의 지지획득에 있어 첫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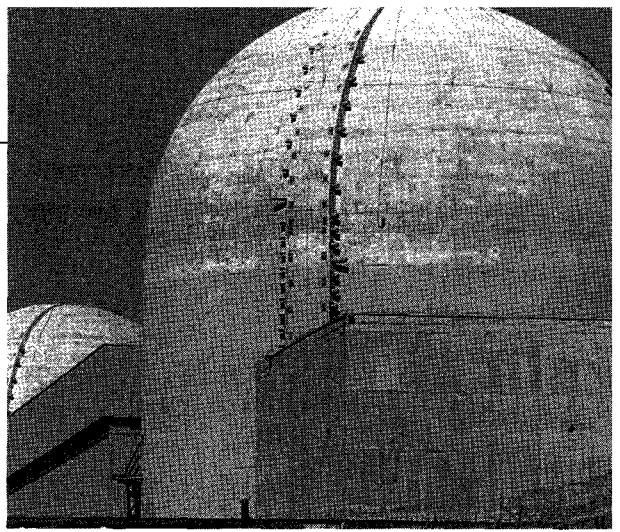
언론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평소 기자들을 포함한 언론기관 종사자들과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함은 물론 원자력에 관한 국내·외 각종 자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실상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원자력에 대한 비판위주가 아닌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에 대해 취하고 있는 홍보대책은 아래와 같다.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평소 친원전 언론인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기자 및 뉴스평론가 등 영향력있는 언론인에 대한 해외 원전시찰을 알선 및 지원하여 외국의 원전 운영 실상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친원전화 하고 있다.

○원전 운영현황을 공개하기 위한 정기적인 기자회견 등을 실시하거나 원전 착공, 준공, 고장정지시 등 계기가 있을 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장시에는 원인, 영향, 조치결과 등에 대해 기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제 3위치 (경제계등) 인사들의 기고 기회를 장려하고 보도상 오류나 편파성이 있을 때 독자 투고란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항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곧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제에 대비하여 지방언론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언론의 현장 취재시에는 현장의 말단까지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하여 생동감 있는 취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신문 등에 홍보 및 보도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 2. 地域住民對策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라 유리한 면에서는 불리한 면에서든 직접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어도 가장 예민하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바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인 것이다. 따라서 원전의 원활한 운영뿐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후속기도 현재 원전이 가동중인 부지내에 위치할 것을 감안하면 후속기의 원활한 건설추진을 위해서도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및 지지획득은 필수적이다.

최근 한국의 원전주변에서 발생하였던 집단시위 등에서 지역주민은 원전으로 인한 불안감을 표면적 이유로 보상 및 집단이주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 등으로 인한 불만이 주요 원인으로 앞으로 생존권 문제를 내세운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요구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다는 단순한 설득 차원을 넘어 도로포장 등, 각종 지역숙원사업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의 적극적인 개발에 중점

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가시적인 혜택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협력사업이 지역을 위해 베푸는 것이라는 생색이 아닌 원전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원자력의 사활이 걸려있는 지역 사회에 환원한다는 겸허한 자세하에 도, 군 등 지방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발전을 위한 생업개발 등을 장기적인 목적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확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력판매액중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협력사업은 '9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원전의 안전에 대해 지역주민이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원자력에 대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원전 운영현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국내 다른 원전시찰 또는 외국원전에 대한 시찰도 매년 한전 비용으로 실시하고 있다.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근학교 학생들을 발전소에 초청하여 방사선의 성질, 차폐, 측정기술 등을 설명하여 주고 있으며, 환경방사능 시료채취 및 분석시 지역주민을 참여 시키고 있다.

○지역내 영향력이 있는 주요인사를 파악하여 개인적 친분 등을 통한 접촉을 통해 평소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각종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소내 주요 행사시에도 지역 주민을 필히 초청하고 있다. 또한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과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3. 次世代對策

젊은 학생층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게 될 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현실적이기 보다는 이상적이기 때문에 반핵단체 등의 비판적 논조에

쉽게 동화되기 쉬운 취약성이 있다. 최근 반핵단체 회원중에 젊은 층이 많으며 반핵단체의 최우선의 포섭대상이 학생층인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젊은 세대에게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파하여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나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각급학교 교재에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술내용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과학, 경제, 사회분야 교과서에 원자력의 기본원리뿐만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 기여도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문교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강의시 활용할 부교재, 시청각 자료 등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작문대회, 논문모집, 포스타모집 및 사생대회등 각종 행사와 원전시찰도 매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시행중인 과학교사의 원전시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과학교사 명단을 전산입력 관리하여 정기적으로 원자력에 관한 교육자료를 송부하고 있다.

### 4. 一般大衆對策

원자력홍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최종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대중이다. 일반대중은 교육수준 등이 상이한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자력에 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조그마한 위험이라도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부나 대기업의 공식적인 발표나 자료 보다는 소수인의 근거없는 비판적 언행에 더 관심을 갖기 쉬운 속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 및 한전의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국민의 신

위를 얻고 있는 여론주도층 인사 또는 제3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반대중이 문제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에게 정보 제공시에는 일반대중을 설득하려고 하기 보다는 스스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전의 일반대중을 위한 홍보대책은 다음과 같다.

○언론인, 교수, 의사, 성직자 등 일반국민과 접촉이 많고 신뢰를 얻고있는 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친원전 인사를 많이 확보하고 이들을 통해 자연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반인은 방사선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소량의 방사선량도 위협한 것으로 인식하기 쉬우므로 의사, 과학자 등을 통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원자력에 관한 모든 것은 공개한다는 원칙 하에 사고 및 고장은 물론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환경방사선 측정치 등이 포함된 원전운영 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를 하고 있다. 또한 본사 및 각사업소에 방문, 전화 및 서신 등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범위는 세부적인 내용은 많은 논쟁의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각 원전부지마다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 전시관에 추가하여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도 원자력 홍보관을 설치할 것을 추진중에 있다.

○일반대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 사회단체를 친원전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을 위한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

### Ⅲ. 韓電의 原子力弘報現況

한전의 원자력 홍보활동은 본사의 원자력안



전실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내 각 부서에 원자력 홍보담당을 선임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원전마다 원자력 홍보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어 전시관 운영 및 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 판매를 위한 지점, 지사 등 전국에 퍼져 있는 한전의 모든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원자력 분야 근무자뿐이 아닌 전직원(약 30,000명)의 원전홍보요원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 홍보활동은 한전내 전 조직을 통해 수행되므로 정확한 홍보활동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89년도 홍보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요 홍보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원자력에너지 등 37종 약 97만부
-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 TV : 18회
  - 라디오 : 8회
  - 신문 : 172회
- 원자력발전소 시찰 주선 및 안내(교통편의 및 숙식제공)
  - 각종 주요단체 : 17개 단체 1,930명
  - 원전 지역주민 : 4개 지역 360명
  - 원전 후보지주민 : 7개 지역 560명
  - 대학생 : 80개 대학 5,300명
  - 지역인사 : 14,800명
  - 직원가족 : 1,400명
- 언론인 홍보

- 기자단 초청간담회 실시: 19회
- 발전소 취재 지원: 10회
- 원자력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여성단체 장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설명회 등 22회
- 원자력홍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원: 학계, 언론계, 저명인사 7명
  - 운영: 매월 정기 간담회 및 원전 시설 방문
- 정기적인 홍보책임자 회의 실시
  - 원자력발전소 홍보책임자 회의: 수시
  - 전력 그룹사 홍보책임자 회의 개최: 년2회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기술(주)
    - 한국전력보수(주)
    - 한국중공업(주)
    - 한국핵연료(주)
    -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초·중·고교 원자력 교육 부교재 개발 및 배포
  - 원자력: 초·중교 과학교사용(5,200부)
  - 원자력 에너지: 고교 과학교사용(3,000부)
  - 학습자료 참고사례: 중·고교 과학교사용(8,200부)
- 반원전 단체 반핵집회 참관: 22회
- 전국 중·고교 교장 및 과학교사, 홍보자료 송부
  - 대상: 11,635명(교장: 3,852명, 과학교사: 7,783명)
  - 자료: 원자력에너지 외 5종
- 여성 원자력 홍보요원 특채 및 양성교육 실시
  - 채용: 대졸여성 8명
  - 교육: 원자력 발전이론 및 홍보 소양교육
- 과학교사 원자력 강연회 개최: 2회, 850명
- 직원 홍보교육 실시
  - 지점·지사 근무자: 15회 2,200명
  - 연수원 교육생: 11회 600명
  - 원자력 홍보요원: 2회 40명
- 주요 홍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대상: 언론인, 과학교사, 각종 단체장 등 40,000명
- 홍보자료 송부: 13종
- 원자력발전소 전시관 관람객 유치(396,000명)
  - 고리: 69,000명
  - 월성: 30,000명
  - 영광: 44,000명
  - 울진: 253,000명

#### IV. 結 論

원자력발전은 한전의 경영상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전은 원자력 홍보를 위하여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목표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록 원자력 홍보는 투입된 노력에 대한 효과의 즉각적인 측정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동안의 집중적인 홍보노력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전은 정기적으로 홍보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친원전 조직의 저변확대, 홍보전문가 양성 및 홍보자료의 다양화 등 문제점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의 경험 등을 참고로 하여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 있어 원자력 홍보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반핵 단체들의 협력관계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자력 홍보를 위한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양권이면서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양국의 원자력 홍보를 위한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반원전여론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양국의 원자력 홍보를 위한 협력강화는 양국의 원자력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을 확신한다.